

**통우컬럼**

AI 예배?

독일의 한 교회에서 인공지능 AI가 예배를 인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어느 성도가 이 뉴스를 접하고는 “목사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라고 물었다. 나는 “절대 안 받으신다.”라고 단호하게 답해줬다. 분명히 말하지만, AI의 설교, AI가 부르는 찬양, AI의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AI가 주의 종보다 설교를 잘하고, AI가 성가대보다 아름다운 화음을 낼지라도 그것은 기계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둔탁한 입술을 가졌을지라도 기쁨 부은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완벽한 화음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광과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사43:21).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진화해도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다. 영(靈)의 문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창2:7). 복제기술이 발달해도 침범치 못하는 영역이 영의 세계 아닌가. 영은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만의 독자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시고, 그 영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며, 그 영을 영원 세계로까지 인도하신다.

AI의 기술은 날로 진화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관리를 벗어나 무진장 진화하여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바다를 가를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고, 승배의 대상, 치리자가 될 위험 소지마저 다분하다.

누군가는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방법은 다를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시대가 변하면 방법도 변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야겠지. 그러나 활용은 하되 오용해서는 안 된다. 보조수단으로는 가능하나 넘치 말아야 할 선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
시느니라”(요4:23).

하나님은 스마트한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자를 오늘도 기다리신다. 피로 값 주고 산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

목사님께서 해외집회에서 하시는 설교 가운데 돈을 비유로 성령에 대해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설교를 통해 수많은 목회자, 정치가, 사업가들이 무릎을 친다. 설교의 내용은 이러하다.

“아버지가 먼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오게 될지 기약 없는 일정이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뭔가 주고 떠납니다.”

그러곤 회중 몇몇을 불러올려 그 아버지가 무엇을 주고 떠날지 질문하신다. 간혹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는 돈을 주고 떠난다’고 답한다.

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셨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고. 그런데 자녀들이 마귀에 속아 성령을 소멸하니 번번이 악한 영들에게 당하며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사 종들을 보내 다시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꺼져가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려는 것입니다. 모두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고,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해외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고, 그 열매로 목사님 표현처럼 지구를 150바퀴 넘게 돌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수요예배를 통해서도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도, 예수님의 시대도 아닙니다. 성령이 통치하시는 성령의 시대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곧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며 그에 따르는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은 은사를 사용하여 음부



멕시코 카르데나스 집회 광경

“그렇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집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떠나며 이렇게 당부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단다. 먹을 양식도 살 수 있고, 차도, 집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절대로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돈을 잃어버리면 거지꼴이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 아버지를 두었어도 당장 돈이 없으니 남에게 빌어먹는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되어 자녀들이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어찌 이 소식을 알게 된 부자 아버지는 급히 사람을 보내 다시 돈을 보내줍니다. 돈을 받고 자녀들은 다시 이전처럼 풍요롭게 생활합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이 땅을 떠나시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회개한 심령
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짓을 일
삼으며 자녀들을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
들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고 요동한다. 그
다음은 영상으로 많이 보았던 대로 귀신
들이 떠나가고 각색 질병에서 고침 받으
며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집회로 마무리
된다.

그리고 목사님은 마지막 집회를 마치며
꼭 이 멘트를 하신다.

“이제 나는 떠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며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항상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절대로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의 권세에 지지 말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곧 성령의 은사를 자녀들에게 주신 이유는 쓰라는 것입니다. 돈은 쓰라고 준 것입니다. 돈이 지갑에 들어있어야 무슨 소용입니까? 밖으로 나와야 돈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시대 목사에게 쓰라고 준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니 다시 회수해간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쓰지 않으면 가뭄가십니다. 무기를 손에 쥐고도 적에게 당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적을 물리치세요. 적이 없으면 평화는 절로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KBS스포츠월드)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26:12~18)

너의 상상력의 전원을 끄지 말라



집회차 미국에 갔을 때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호텔에서 대접한 적이 있어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은 교회에 계시지 않았습니 다. 교회 측에서는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제 관념대로 기도원이나 아니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말이 바다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생소해서 물었지요, “바다에서 기도하다니요?” 그랬더니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정말 쇼킹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두고두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래야지. 정말 멋지다.”

돈보다 충실한 하인은 없다

기독교인의 병폐 중 하나가 부자로 살면 웬지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 거룩하게 살려면 청빈(淸貧)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의 종들이 복, 복 이야기하는 교회는 기복신앙이니 주의하라’고 가르치니 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No. 예수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8:9)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을 보면 온통 ‘복’ 이야기입니다.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심지어 땀만족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꾸어줄지라도 꾸러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복신앙입니까? 이는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격입니다. 목회 초, 저는 우리 성도 모두를 학교버스에 태우고 방배동의 한 호텔 뷔페식당으로 갔습니다. 35년 전쯤의 일이니 뷔페식당을 가본 사람은 거의 없었고, 더욱이 호텔뷔페였으니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저는 그들에게 맘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교회 돈 아닙니다. 사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내가 잘돼야 나눠줄 것 아닙니까? 내가 지리지리 궁상인데 누구에게 뭘 나눠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이곳에 모시고 온 것은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나도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주입되기를 바라는 마음

에서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요.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 봐야 부자가 되고 싶지요. 제가 돈 자랑한 것이 아니라 가난이 정상인 줄 알고 사는 그들 생각의 틀을 깨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죄가 아닙니다. 혹자는 “악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19:24)는 말씀을 걸고넘어지는데요. 그들이 그다음 구절을 안 읽어서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자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총회장 이초석 목사

수 없으 되 하나 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나라”(마19:26)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불가능한 부자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늘귀를 크게 만들면 약텐들 못 들어가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하는 분들,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잘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겠도다”(딤후6:10)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몸도 팔고, 사람도 죽이는 등,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평생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福音), 기쁜 소식이 들어가 부유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나눠주며 복

음을 널리 전파하기 원하십니다. 복음이 현실을 떠나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타종교는 스스로 고행의 길을 가며 진리를 터득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낳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누리고 살다가 천국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다 부자, 거부(巨富)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이 소떼, 양떼가 넘치게 하였고, 이삭은 당년에 백배 축복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친히 가르쳐 주셨으며, 요셉을 약관의 나이에 대국의 총리 자리에 앉혀셨습니다.

여러분, 돈은 참 좋은 겁니다. 돈은 배신하는 법이 없고, 언제나 제 가치만큼 충실히 봉사하는 하인이요, 충신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잠10:15). 돈이 없으면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찌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잠19:7)고도 하시며, 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그 래야 고아원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9월에 가는 페루집회도 상당한 선교 자금이 들어갑니다. 성령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돈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 잘살아 봅시다. 그래서 선한 일, 주의 일을 많이 합시다.

그러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본금이나 기술력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그 행동이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있지요?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입을 왕창 크게 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상상은 보이지 않으나 결국 그것이 보이는 실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11:1). 우리 성도분이 명예퇴직을 해서 풀이 죽어 있었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이제 남의 밑에서 일하지 말고, 사장되라고 명퇴시킨 거니까 힘내요.”라고 말하고는 “의자에 폼 나게 앉아서 ‘미스 김, 커피 좀 가져와요.’라고 해봐요. 사장인 당신 모습을 자주 그려봐요.”라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처음에는 쑥스러워 못했는데 아내가 자주 시키니까 한번, 두 번 해보더니 나중에는 행동도, 말투도 사장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정말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팔자야, 운명이야’ 이런 소리하지 말고, ‘나도 부자가 되어보리라’, ‘나도 누구처럼 잘살아 보리라’ 생각하세요. 별 거 아닌 것 같은 그 생각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사과 속의 사과 씨는 헤아릴 수 있지만 사과 씨 안에 사과는 헤아릴 수 없거든요.

사과 씨 안의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

저는 저의 상상력의 전원이 꺼질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제가 지금 세계 73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계교구’라는 상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광명 철산리 지하 교회에서 한 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할 때 ‘세계교구’라는 말에 모든 자들, 저를 사랑하는 스승마저도 비웃었지만, 저는 늘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때가 되니 정말 이뤄집니다. 저는 그날에 주님과 한 상에 앉아 떡을 때며 심판하는 상상을 종종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날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동차가 운전하는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듯 생각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느냐, 후진만 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왕이면 부자가 되는 길로 몰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은 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천태만상일까? 각기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늘 동일하시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서먹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있다’고 말씀하셨다(사29:13). 주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반복 교훈하셨다(마15:7~8).

사무엘상 4장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이 전쟁에 불리해지자 법궤를 메고 전선으로 간다.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면 그들이 승리할 줄 알았다. 생각과 달리 그들은 완전히 패했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여호수아 3장에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 제사장들의 발목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멈추고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는데 왜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기적이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19장에도 바울과 그를 흉내 내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온다. 똑같은 예수 이름을 사용했다. 바울의 예수는 앞치마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데 스게와의 아들들의 예수 이름은 귀신들이 그들을 덮쳐서 옷을 찢고 벗겨 벗은 채 도망

치는 일이 벌어진다. 예수가 두 분이신가?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무슨 사연일까? 내면을 들여다보면 법궤를 메고 간 사람들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다. 홉니와 비느하스의 삶은 제사장의 삶이 아니고 제사장을 빙자한 파렴치한 삶을 살았고,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은 다니며 마술이나 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반면에 여호수아의 제사장들은 충성스럽고 성결했고, 바울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오는 걸까?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의 삶이 다른 걸까? 조용히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지, 왜 지금의 나의 삶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지. 탕자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죄를 지은 다윗이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6:7~8).

이시대 목사

:: 신앙논객 ::

맛있는 여름, 맛있는 교회

해마다 여름이 되면 청소년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 기타 여러 가지 행사들로 교회가 분주하다. 교역자들과 일꾼들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은혜의 자리에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동분서주하기 마련이다. 올해는 더욱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교회가 회복과 부흥을 도모해야 할 시기기에 더욱 그렇다. 청년, 대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 역시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의 부흥에 관심이 많다.

그러던 중 최근 국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 청년사역자가 쓴 책을 읽었다. 처음 책을 잡을 땐 청년 부흥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그런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책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을 모을까, 청년들을 교회에 오래 머물게 할까, 일꾼을 세우고 훈련시킬까’ 하는 방법적인 것은 전혀 없었다. 다만 저자가 처음 청년들을 맡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중에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책을 읽는 내 심령에도 깊이 박혔다.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라. 대안을 찾지 마라. 대체 활동을 늘리지 마라. 요란한 행사로 시선을 끌지 마라. 알팍한 전략을 끌어들이지 마라.”

신혁주 전도사

:: 찬양과 경배 ::

후회 없는 삶

우연히 간증을 듣게 되었다. 30대의 나이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면서 힘든 삶을 살아오신 어느 아내의 이야기였다.

가벼운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다 듣고 나서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늘 ‘사람 일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지내오긴 했다. 그럼에도 그 간증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나에게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기도 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다음으로 ‘하루를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문득 궁금증이 들었다.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는 그런 것일까? 잠잘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일까? 나는 결론을 내렸다. 그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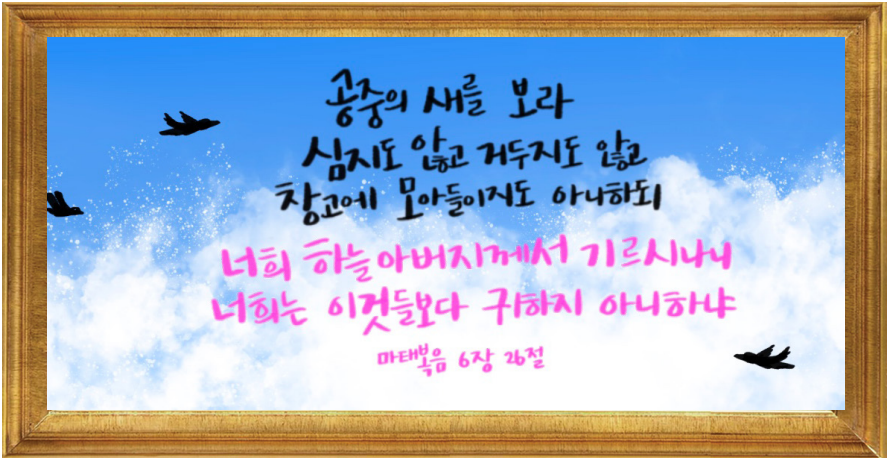
는 것이다.

나는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의 기준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급하게, 그리고 넘치게 삶을 대하기보다는 먼저 ‘내 삶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자’는 생각을 했다. 무언가 특별한 삶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 보자’고 말이다.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 삶을 허투루 살지 않고 아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하루하루를 예쁘게 보듬어 가면서 나만의 삶을 만들어 간다면 갑자기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질 것이고, 아낌없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인영 집사



::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세상 사람이 된다. 좋은 사람과 가까이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과 가까이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라 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집을 세 번이나 옮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가장 위대한 신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시73:27~28).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을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요1:1)고 했다. 그러므로 말씀 영접이 하나님 영접이요, 말씀 가까이함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함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려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해야 한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2달러 75센트를 주고 가족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가 있게 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잠4:7) 하셨다. 그렇다면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신다(신4:5~8). 성경을 펴고 정독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낭독도 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된다.

임택함 목사

:: 간증 ::

:: 글쓴의 주님 ::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주신 주님



제 큰아들, '도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오는 해병대도 나왔고 평상시 운동하며 계획을 세워 자기 관리를 잘하는 튼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 2022년, 아침에 축구하러 간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가 가까운 병원으로 갔는데 심장 파동이 아주 불규칙하다며 지금 곧바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갔고, 여러 가지 검사를 급박하게 하더니 심장이건 소견으로 나왔으며 당장 입원하여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아들 심장에 많은 기계와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속 체크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아 두 손을 꼭 잡고 제발 괜찮아지기를, 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길 12시간이 지났을 때쯤 의사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 같으며 잘 관찰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동안 심장을 체크하는 기계를 몸에 달고 퇴원하라고 하였고, 다시 이상이 있으면 곧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론 아무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올해 5월에 아들 도오가 가슴이 조여오며 통증이 와서 아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덜컥, 몸이 후들거렸고,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장이, 왜 하필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일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 믿음 없는 마음이 들며 울었습니다. 절망감이 왔고,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이번엔 정확히 알고 싶어 삼성의료원으로 갔습니다. 이상이 없을 걸 기대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의사 선생님의 무서운 말을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아들 앞에서 무너지면 아들은 더 두려워할 것 같아 제 가슴은 쪼그라

들어 믿음은 온데간데없는데 입으로는 믿음이 강한 엄마처럼 단호하게, "아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엄청 사랑하실 텐데 이대로 놔두겠어? 하나님이 손해 보실 걸." 하며 웃어보였습니다. "아들!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말은 잊자.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잖니?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도오한테 일어난 일은 모두 허상인 거야. 실상은 아프지 않아. 우리 기도하자." 그 한마디하고 웃음이 없어진 아들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 표정은 '나는 아픈데 엄마는 걱정을 안하는구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고 싶어 간절히, 절실히 속으로 기도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잠깐 출장 갔던 믿음이 돌아왔는지 울컥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난 아들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세상일 겁니다.' 눈물이 흘러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행여 아들이 보면 아들 마음이 더 약해져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도오 손을 잡으며, "어쩌겠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귀가 따갑게 목사님한테 들었으니 믿는 거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의사는 할 수 없지만 도오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틀림없이 들으실 거고 응답해주실 거야." 하고 아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일주일간 저와 아들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며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앉으나 서나 걸어 다니면서 통곡의 눈물로 기도를 했고, 권사님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 여러 사람의 중보기도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두셋이 모여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말씀도 생각났고, 빨리 응답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왔던 주일예배가 왔습니다. 아들과 저는 목사님께 안수받기로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요. 목사님께서 도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저는 예수님의 손으로 보였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저도 안수하시며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도오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더 큰 믿음의 아들로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저 또한 주를 향한 사랑과 기도가 되살아나서 기뻐했습니다. 그 이후로 도오는 한 번도 통증과 아픔이 없

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삼일 작정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이틀간은 둘이서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날에는 전미자 전도사님께 예배를 드려주십사 전화를 드렸는데 기쁘게 OK 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가시고 났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감사해서 눈물이 났고,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문에 아들이 고침을 받고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6월 7일 다시 검사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도오는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아무 걱정 없이 깨끗해졌음을 믿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10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도오의 심장이 아무 이상 없다며 일반일과 똑같이 튼튼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 안수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고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6월 25일, 방송실로 아들과 함께 찾아뵙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며 아들과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평상시 아들 이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시댁 어른들이 절에서 지은 이름이라 바꾸고 싶어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목사님, 아들 이름도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우리가 방송실에 들어가기 전에 '살놈'이라는 이름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제가 아들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대뜸 "그래, 네 이름이 살놈(살롬:평안)이다. 살롬이라고 해라."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 놀라운 기적과 기쁨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에서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셨습니다. 아들 살롬(살롬)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목사님께 전해드리러 갈 때 저는 새벽에 일어나 간증문을 써서 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 전해드려야 하나 망설이다가 그냥 가지고 왔는데,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는 교회 신문을 담당하고 계신 전도사님이 전미자 전도사님을 통해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명교구 최인희 권사

수령

곤죽이 된 진흙과 개흙이 물과 섞이어 많이 고여있는 깊은 수렁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나올 수 없다. 아무리 운동 신경이 발달하고 세계적인 수영 선수라도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더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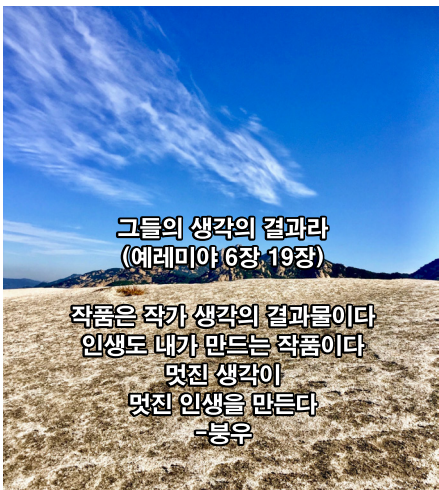
물이 없는 사막에도 사막 수렁이 있다고 한다. 한때 7대 불가사의였던 버뮤다 해협, 마의 삼각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다. 배도 많이 실종되었고 비행기도 실종되었다. 석유시추선이 갑자기 침몰 되어 갯벌 속에 묻혀 버리는 것을 보고 버뮤다 해협의 불가사의가 밝혀졌다. 버뮤다 해협을 지날 때 바다 밑 갯벌에서 가스가 올라오면 지나던 배가 부력을 잃고 바다 밑 갯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공중을 나는 비행기도 가스 때문에 공기의 기압이 떨어져 급강하하여 갯벌 속으로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이것이 바다 밑 수렁이다.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TV로 방영이 되었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도를 닦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종교라는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학문의 수렁, 재물의 수렁, 명성의 수렁, 권력의 수렁, 종교의 수렁에 빠져있다. 나름대로 살아남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최악의 수렁에서, 질병의 수렁에서 살아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최악과 질병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시69:14~15).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살면 나도 모르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수없는 수렁이 나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安然히 살게 된다.

이승호 목사



2023
청소년 연합 수련회

중고등부: 7월 24일(월)~26일(수)
대학청년부: 7월 27일(목)~29일(토)
문의: 02. 533. 9191